

국내 유일 정원산업 클러스터 밀그림 그렸다

전주시, 도도동 항공대 인근 정원문화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완료

항공대대가 옮겨간 전주시 도도동 일대가 정원 식물소재를 생산·유통하는 산업기지이자 시민들이 휴양 및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정원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전주시는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전주 정원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거쳐 도도동 항공대 인근 34만㎡ 부지를 국내 유일의 정원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밀그림이 그려졌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정원산업 클러스터란 정원과 관련한 생산, 유통, R&D, 교육, 문화 및 관광 등 모든 시설 및 기능이 집적화된 것을 말한다.

기본구상 용역을 맡은 (주)에스엠에이는 ▲도도동 항공대 일원의 개발여건 분석결과 ▲공간별 시설별 기능 등 기본구상 ▲투자계획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화 계획을 담은 결과물을 도출했다.

(주)에스엠에이는 정원문화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를 ▲정원 식물소재 생산구역 ▲정원 박물관구역 ▲정원산업 혁신구역 ▲정원휴양 및 관광구역 ▲정원 소재 유통구역 등 총 5개의 구역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감도.

(Zone)으로 나뉘 기능별로 핵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정원 식물소재 생산구역의 경우 시립 양묘장을 이전하고, 스마트양묘장과 수생양묘시설 등을 설치해 정원 관련 식물소재의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원 박물관구역은 정원박물관 전시 공

간 등 정원 관련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제시했다. 정원산업 혁신구역은 정원지식산업센터와 정원전문인력양성센터 등으로 정원 관련 기업들의 창업 보육 및 실습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정원휴양 및 관광구역에는 전주 시민과 여행객을 위한 주민참여 공동체정원과 자유정원, 어린이정원 등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원소재 유통구역의 경우 유통센터와 가든마켓, 야외전시판매장,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정원소재 및 관련 도구를 판매·전시·유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도시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민선7기 첫 번째 결재사업으로 '전주 정원도시' 정책을 선택한 후 '전주정원문화비밀회'를 개최하는 등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꾀하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정원산업 클러스터는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누리는 공간이자, 정원 관련 자원기관과 단체들이 집적해 관련 소재 생산에서부터 유통 등 정원산업을 이끄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생태계 조성 뿐 아니라,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낮추고 미래세대의 환경까지 지켜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주형 통합돌봄 강화 '온 힘'

시,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 통해 코로나19 대응 큰 힘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이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인 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주시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고독사 등의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은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 ▲통합돌봄서포터즈(노인일자리) ▲고독사 예방 안심업 서비스 ▲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등 전문 퇴직 인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통합돌봄 서포터즈 사업을 발굴, 노인들의 건강지킴이와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는 전주형 통합돌봄 핵심사업 중 하나인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해 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검진 및 질병 예방 교육에서부터 방문진료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3년차를 맞아 탄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고독사 등 홀로 방치되는 이웃이 없도록 비대면 서비스 발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홀로 거주하거나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일제 방문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한편,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원격 진료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거노인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안심 서비스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동네건강돌봄 이용센터, 통합돌봄센터 구축, 고평자 복지주택 건립 등 통합돌봄 추진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존 통합돌봄 대상인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주형 돌봄 체계를 확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 전주시 통합돌봄과장은 "코로나19는 새로운 복지모델의 요구와 함께 대한민국의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형 통합돌봄 안전망 강화에 온 힘을 쏟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통합돌봄 선도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3년차를 맞아 탄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3년차를 맞아 탄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3년차를 맞아 탄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3년차를 맞아 탄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3년차를 맞아 탄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3년차를 맞아 탄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3년차를 맞아 탄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3년차를 맞아 탄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3년차를 맞아 탄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3년차를 맞아 탄탄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상인 대상 '블로그 글쓰기 이용한 마케팅' 강연

전주시가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특별한 문화 강연을 연다.

시는 오는 9월 27일과 10월 4일 두 차례 전북대 대학로 상인회 사무실에서 인근상인들이 참여하는 '블로그 글쓰기를 이용한 마케팅' 강연을 개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특강은 시가 생업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기 힘든 상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신청 상인들에게 원하는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책 읽는 가게' 인준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이병화 원광대 겸임 교수가 강사로 나서 ▲블로그 이용 기본 방법 ▲마케팅 컨텐츠 기획 ▲블로그 글쓰기 ▲키워드 분석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해 상인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에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북대 대학로 상인회를 비롯한 4개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문화프로 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윤상 기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 아파트에 인센티브

전주시, 공동주택 315단지 대상 종합평가해 종량제봉투 지원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잘 하는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315단지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상태와 아파트 주민 홍보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기로 한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기존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기로 했다.

시는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개소, 우수 4개소, 장려 10개소 등 총 16개 공동주택을 선정해 등급에 따라 각각 500매, 250매, 100매의 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우유팩, 건전지, 아이스팩) 화장지 교환사업 ▲취약지 분리배출 시설개선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및 수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조 사업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및 분리수거 개선을 위한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지 2만 부와 분리할 안내표지 스티커 3000부를 제작해 공동주택에 배포했으며, 현수막과 버스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펼쳐왔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단일재질이 아닌 2가지 이상

의 복합재질로 구성된 경우 등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또는 앱스토어)에서 '내수인의 분리배출' 앱을 설치하고 검색 및 질의하면 각 사례별 품목별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알 수 있다"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고, 고품질의 재활용품이 수거돼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투명페트병을 배출하려면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 분리수거장 투명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넣어야 한다. 유색 페트병의 경우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되며, 그 외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는 배출할 품목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것은 재질별로 분리하고 물도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를 배출하면 된다. 유리제품이나 사기·도자기의 경우 재활용품이 아닌 관계로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장애인 양궁 꿈나무 육성 전용훈련장 조성

패럴림픽 양궁 금메달 꿈나무를 육성할 장애인 전용 양궁훈련장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총 4억 원을 투입해 황방산 근린공원 내 팔복배수지 상부를 활용해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양궁훈련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실내양궁장 1동과 창고 1동(188㎡)을 신속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전용 양궁훈련장이 조성되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우수 양궁선수도 발굴·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스포츠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용 양궁장이 더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체육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